

언택트·디지털·친환경 전환 가속... 반도체 등 7업종 '맑음'

하나금융연 내년 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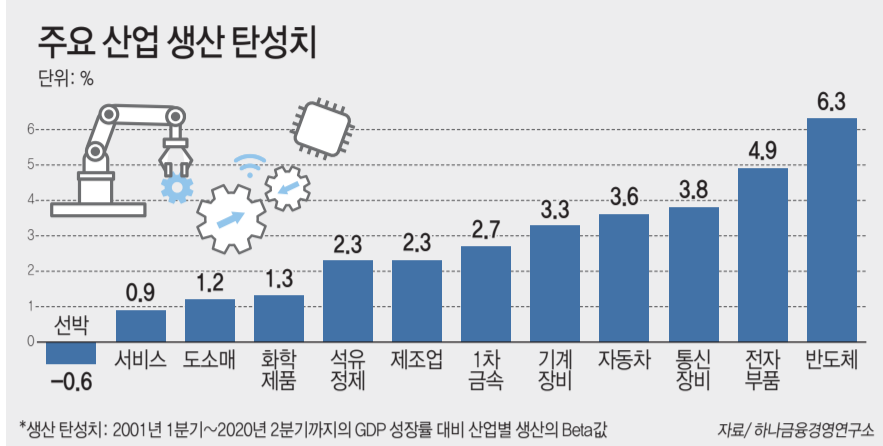
주요국 봉쇄 완화·정부 투자 ↑ 언택트 수혜 반도체 성장 전망
정유·건설업, 업황회복 난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책지원이 확대되며 언택트(비대면)·디지털·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급처, 제품 수요처 등 전·후방 공급망도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7일 '2021년 산업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한국산업의 미래에 대해 진단했다.

연구소는 우선 내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투자가 확대되고, 주요국의 봉쇄가 완화되며 국내 주요산업의 업황이 회복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회복될 수 있는 산업분야로 반도체·휴대폰·자동차·조선·소매유통·철강·석유화학 등 7개를 꼽았다.

연구소는 특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중인 이차전지 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 그리고 언택트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의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이차전지 제조업의 경우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 신규 자동차 업체 납품, 생산능력 증가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EV) 배터리 보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양호한 글로벌 시장 지위 등으로 국내 이차전지 업체의 매출액이 2021년에도 3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정보서비스업은 검색 및 메신저 등 플랫폼 분야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커머스, 결제, 콘텐츠 등 타 사업으로의 확장되며 고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독과점 플랫폼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

려가 높아지면서 정책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석영 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리스크 요인이지만 메모리(노트북 및 서버 수요)와 비메모리(파운드리 수요) 부분의 동반 수요 회복과 적절한 공급 조절로 국내 반도체 업체의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과 건설업은 내년에도 업황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정유업의 경우 복합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고 역내 공급 과잉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정유사들이 정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것으로 봤다. 안혜영 연구원은 "주요 정유사의 실적이 올해에 비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 회복시기〉

산업명	Base	Bad
음식료	20.2Q	20.2Q
정보서비스	20.2Q	20.2Q
2차전지	20.2Q	21.1H
건설	20.2Q	21.2H
소매유통	20.2Q	21.2H
철강	20.3Q	21.2H
반도체	20.3Q	21.1H
핸드폰	20.3Q	21.1H
자동차	20.4Q	21.2H
조선	20.4Q	21.2H
석유화학	20.4Q	21.2H
정유	21.1H	21.2H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업황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공급확대로 수주실적은 개선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분양실적이 부진해 내년에도 매출액 감소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주택수요자가 대형브랜드를 선호하고, 공모중심으로 정부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

사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춘 ▲정부투자 확대 ▲자국우선주의 확산 ▲산업생태계 변화 가속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과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4차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각국은 생산 안보 강화와 자국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 제한, 리쇼어링,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 생태계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패권전쟁으로 원재료 공급처, 제품 수요처 등 전·후방 공급망의 재조정이 예상된다.

김영준 산업분석팀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서 뒤처질 경우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정유, 항공, 오프라인 유통과 전기차 전환 이슈가 있는 자동차 제조업 등의 경우 산업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살얼음 부동산 대출규제, 공공기관엔 '미풍'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 최대 1.8억 지원
서울지역 주택구입 대출건수 포함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묶여 일반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동안 정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을 통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 중에는 서울지역 주택구입 대출건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이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고, aT는 금리 1.6%에 최대 1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마사회 또한 2.2%의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공공기관 3곳 모두 대출 대상 부동산 물건의 소재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3개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전체 245건의 대출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지역 주택구입은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은 39건에 서울 소재 주택구입은 절반에 육박한 15건을 차지했다.

마사회는 30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에 10건이 서울 소재 주택 대출 건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불공정 대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촉구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권평오 코트라 사장이 6월 29일 온라인 무역상담 현장을 방문해 거래 논의 중인 바이어와 화상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코트라, 코로나 이후 화상상담건 2만건 ↑

연간 목표 2000건 훌쩍 넘겨
287건 계약·6133만 달러 수출

전 세계 84개국에 127개 무역관을 거느린 KOTRA(코트라)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비대면 화상상담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코트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화상상담 제도를 집중 운영한 결과 상담 건수가 2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화상상담 건수 2만건은 작년 동기 대비 25배 수준이며 당초 세웠던 연간 목표인 2000건을 훌쩍 넘긴 수치다.

화상상담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는 9469개, 국내 참가기업은 6928개다. 국내 기업당 평균 2.9건의 화상상담을 지원했다.

3월 말 기준 해외 바이어의 참가지역은 중국, 서남아, 동남아대양주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나 해당 비중이 6월 말에는 51%, 현재는 46%로 각각 줄어 상담지역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코트라는 미국, 유럽, 중남미, 독립국

가연합(CIS) 지역 바이어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상담 품목은 영상 상담이 용이한 화장품, 미용기기, 생활용품, 식품 등 소비재가 많았다.

다만 코트라의 상담 품목 다변화 노력으로 소비재의 상담 비중은 3월 말 65%에서 현재 45%로 낮아졌으며, 대신 자동차부품·기계부품 상담은 16%, 의료기기 상담은 12%로 비중이 확대됐다.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화상상담을 통해 287건의 계약이 성사됐고 총 6133만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졌다.

일례로 전남 소재 I사는 스위스 취리히무역관에서 유치한 바이어를 상대로 농업용 소형 다목적 전동 운반차를 11만달러 규모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 소재 기능성장제품 제조기업 T사는 미국 시카고무역관이 주선한 화상상담을 통해 340만달러어치 손세정제를 미국에 수출했고, 플랜트 분야의 A기업은 두바이무역관의 화상상담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 형태로 아랍에미리트 매립가스-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은행연합회, 5000억 사회공헌 사업 마무리

김태영 회장 "3조 사회공헌 실적 예상"

은행연합회가 3년간 실시한 5000억 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지난 2018년 4월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일자리펀드(2200억원), 일자리 기업 협약



보증(1000억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업(250억원)에 총 3450억원을 출연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지난달 은행권일자리펀드 3차 출연(1000억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사업(300억원), 스타트업 지원공간 프론트원(Front1) 운영자금(250억원) 등 1550억원의 사회공헌사업을 확정·의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사진)은 "2018년 국민계 약속드린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3년간 총 3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지원 실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